

기업들 고유가 넘기 눈물겨운 '구두쇠 작전'

저효율 노후 설비 교체
폐유로 난방용 뿔감 활용
휴식 시간에 전등 끄고
...

국내 유가의 고공행진이 지속되면서 광주·전남지역 기업들이 다양한 에너지 절감대책을 펼치고 있다. '허리띠 졸라매기'에 나섰다.

이들 업체는 노후화된 생산설비를 교체하는 운영시스템 전환에서부터 휴식시간 전등끄기 등 사소한 관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절감 방안을 통해 고유가 나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광주·곡성공장은 최근 수십여년을 사용해 노후화된 에어콤포프레서를 고효율 제품으로 교체하고 새로운 방식의 제어시스템을 개발했다.

기존 에어콤포프레서의 경우 에어 사용량 조절을 위해서는 압력계를 육안으로 관찰해야 했으나 새로 개발한 제어시스템은 에어 사용량을 자동으로 조절, 20%의 전력 소비량 절감과 함께 작업공정도 더 정밀해지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뒀다.

또 기름 보일러에서 배출되는 폐열을 재회수해 보일러 급수 온도를 더 상승시키는 설비를 고

안, 보일러 효율을 89.9%에서 93.6%까지 끌어올렸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이밖에 연중 일정한 섭씨 18도를 유지하는 공업용수용 지하수를 냉방용수로 활용하는 장치를 개발, 올해에만 3천700만원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고효율 엔진개발과 함께 자동차 경량화를 통해 차량연비 개선을 위한 기술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자동차 중량 1%를 줄이면 연비를 최대 0.5~0.6%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엔진 등 파워트레인 뿐 아니라 차체·샷시의 경량화도 연구 중이다.

또 장기적으로 기존 내연기관 대비 효율이 뛰어나고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나 에탄올, 연료 전지차에 대한 개발에 힘쓰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자동차의 경우 공급이나 판매측면에서 유가의 영향이 지대하다"면서 "이에 따라 지속적인 에너지 절감활동과 함께 고유가 시대에 적합한 제품과 기술개발에 적극 나서 수

요감소에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삼성광주전자도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을 위해 최근 작업장에 고효율 조명등 및 보일러를 설치하는 한편 창가 조명 끄기 및 사무실 통합 냉난방시스템 운영 등을 실천하고 있다. 또 냉방온도를 1도C 높이고 난방온도를 1도C 낮춘 '냉난방 기준온도 재설정'을 단행하는 등 고유가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있다.

삼성광주전자 관계자는 "전 임직원들이 고유가시대를 현명하게 헤쳐나가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에너지 절감 방안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며 "지난해와 비교할 경우 올해 현재까지 7억원 가량의 연료비를 절감했다"고 말했다.

이밖에 하남산단내 중소 제조업체들도 운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택배시스템을 이용하거나 폐유를 난방용 뿔감으로 활용하는 등 지역 기업 모두가 살인적인 고유가에 '허리띠'를 바짝 조이고 있는 모습이다.

/이종태기자 jilee@kwangju.co.kr



광주 국제 금형·공장 자동화전 개막 14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막된 '2007 광주 국제 금형·금형 및 공장 자동화전(GIMMA 2007)'을 찾은 관람객이 자동화기기를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17일까지 계속되는 GIMMA 2007에는 해외 13개국 20개 업체를 포함, 총 120개 업체가 참가해 산업용 로봇 등 첨단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중소기업 신규 대출 중단

국민은행, 신용 리스크 관리강화 차원 여력 없는 중소기업 자금난 우려

국민은행이 중소기업과 소호(SO-HO)에 대한 신규 대출을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국내 최대은행인 국민은행이 신규 대출을 중단함에 따라 다른 시중은행들도 중소기업 대출 억제 조치를 취할 공산이 커져 지역 중소기업과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자금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14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최근 전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지난 12일까지 접수된 대출 신청 건만 집행하고 중소기업 관련 신규 대출을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근 경기변동에 민감한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신규 대출을 억제하기로 했다"면서 "기존 거래고객에 대한 대출금의 기한연장이나 재약을 취할 공산이 커져 지역 중소기업과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의 자금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민은행이 신규 대출을 잠정 중단한 것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라'는 금융감독당국의 강력한 경고 메시지 때문으로 분석된다.

국민은행은 국민은행 이외에 신한·우리은행 등에도 리스크 관리 강화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져 이들 은행도 조만간 중소기업 대출 억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은 조만간 각 영업점에 공문을 보내 중소기업과 과도한 금리할인 경쟁을 지양할 것을 당부할 방침이다. 또 영업점장 우대금리 한도를 줄이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광주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 중인 김모(47)사장은 "경쟁적으로 대출을 늘릴때는 언제고 예고없이 대출을 중단하면 자금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죽으라는 거나 다름없다"며 "이는 평소 은행들이 일관된 대출정책이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캐나다 쇠고기 수입재개 협상

다음주 수입조건 등 논의

다음주 우리나라와 캐나다 검역 전문가들이 만나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 여부와 수입 조건 등을 논의한다.

여기에 조만간 미국까지 지난달 1차에 이어 2차 수입 위생조건 협의를 제안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림부 등 검역당국은 연말 북미 두 나라

와 동시에 쇠고기 개방을 놓고 힘든 줄다리기를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14일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등에 따르면 한국과 캐나다는 오는 22~23일 과천 청사에서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정하기 위한 기술협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아직 캐나다측 참석자 명단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6월 13일 직접 농림부를 방문해 수입 허용을 요청한

메리 베이커 캐나다 식품감사장(CFIA) 국장 등이 다시 방한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산 쇠고기는 지난 2003년 5월 21일 캐나다에서 광우병이 확인돼 우리 농민부가 곧바로 전면 수입 금지 조치를 취한 뒤 현재까지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월 캐나다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제수역사무국(OIE) 총회에서 "광우병 위험등급" 지위를 인정받았고, 이를 근거로 6월부터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에 수입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고용사정 소폭 개선

SOC 등 취업자 1만4,000명 증가 전남은 경제인구 2만7,000명 감소

지난달 광주지역은 고용사정이 소폭 개선된 반면 전남지역은 계절적인 영향으로 경제활동인구가 급감하는 등 대조를 보였다.

14일 광주전남지방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는 지난달 경제활동인구가 66만1천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0월(65만명)보다 1만1천명(1.7%) 증가한 것으로, 지난달 SOC 및 기타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광주의 지난달 취업자 수는 63만7천명으로, 지난해 10월(62만3천명)에 비해 1만4천명(2.2%) 늘었

다. 이에 따라 광주는 비경제활동인구가 지난해 10월에 비해 3천명(0.7%) 줄었다. 실업자도 지난해 10월에 비해 2천명(7.9%) 감소한 2만5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보다 고용사정이 다소 개선됐다. 반면 전남은 지난달 경제활동인구가 91만4천명에 그쳐 지난해 10월(94만4천명)에 비해 2만9천명(3.1%) 줄었다. 이는 계절적인 영향으로 농업·어업 부문의 취업자가 2만7천명 줄었기 때문으로, 전체 취업자도 지난해 10월보다 2만8천명(3.1%)이나 감소

했다.

전국의 경우 지난달 취업자 증가폭이 정부의 일자리 창출 목표인 30만명을 밑돌았다. 지난달 전국의 취업자는 2천375만명으로, 지난해 10월보다 28만7천명(1.2%) 늘었다. 이는 지난달의 29만2천명 증가에서 5천명 감소한 것이다.

취업자 수 증가는 6월과 7월 각각 31만5천명, 30만3천명을 기록하면서 2개월 연속 30만명을 넘어섰지만, 8월에 29만3천명으로 내려선 이후 3개월째 30만명을 밑돌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네트즌 "취업박람회 핵심은 현장 채용"

광주·전남지역 네트즌들은 취업박람회의 최대 역점 사항으로 '현장채용 확대'를 꼽았다.

14일 광주지역 취업 포털 '사랑방 잡'에 따르면 최근 광주·전남 네트즌 528명을 대상으로 한 '취업

박람회'에 대한 의식조사에서 '취업박람회에서의 가장 중점을 둘 문제'가 '취업'에 가장 많은 응답자가 '현장채용 확대(36.2%)'를 꼽았다. 이어 ▲구직자 취업훈련 및 정

보제금(25.0%) ▲참가기업 확대(22.5%) ▲유망 중소기업 홍보(16.3%) 등의 순이었다.

'기존 취업박람회의 현장 채용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는 '선호기업 부족(31.4%)'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참가기업 적극성 부족(21.0%)' 등을 들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에세 골드 리프' 출시 4천원·1만원 두종류

KT&G는 2002년 출시된 에세가 수출 300억개비(15억갑)를 돌파함에 따라 4천원짜리 새 패밀리를 브랜드 '에세 골드 리프'와 1만원짜리 한정판 '에세 골드 리프 스페셜 에디션'을 최근 출시했다. '에세 골드 리프'는 잎담배(Golden Leaf)를 원료로 최적의 담배맛을 구현시킨 타르 3mg형(니코틴 0.3mg) 제품이다. '에세 골드 리프 스페셜 에디션'은 최고급 재질로 만든 원터치 오픈 방식의 케이스에 담배개비를 직접 담는 수작업을 통해 50만갑만 한정 생산, 전국의 편의점 등을 통해 판매된다. /이종태기자 jilee@

Advertisement for '담배독! 독소안녕~' (Cigarette Poison! No More Poisons).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person and text promoting a product that helps with smoking cessation. The text includes '발발특허 제0528780호' and '한국세 수출품 선물상 성공관대학교 기능성식품공학연구원 개발'.

Advertisement for '태양상사' (Taeyang Sangsa) featuring a large image of a modern interior space. The text promotes '인테리어 및 취미생활' (Interior and Hobbies) and includes the company name '(주)태양상사' and phone number 'TEL: 0621262-0101'.